

2022년 12월 22일 실시
제주문화원 원장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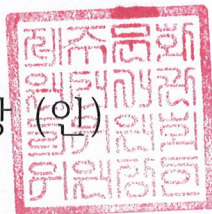
선 거 공 보



- ☐ 입후보자 성명 : 김양택
- ☐ 생 년 월 일 : 1949년 1월 26일
- ☐ 주 소 : 제주시 신산로9길 19, 303호
- ☐ 주 요 경 력 :
 - 전) 한림고등학교 교장
 - 전) 제주도 교육청 평생체육과장
 - 전) 탐라교육원장
 - 전)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 현) (사)바다사랑 실천 협의회 회장
 - 현) 도의회 교육 자문위원
 - 현) 제주도상이군경회 중앙대의원
 - 현) 제주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장
 - 현) 제주문인협회 감사
 - 현) 영주문학회 회장
 - 현) 문뜩사랑봉사회 자문위원
 - 현) 제주문화원 감사
 - 현)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감사
 - 현) 제주문화원 실버합창단 부단장
 - 현) 뉴제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

별첨: 1. 선거공약(A4용지 1면 이내)
2. 소견서(A4용지 1면 이내)

제주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선거공약

◆저가 제주문화원장이 되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 기존에 좋은 점은 좋은 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면서 본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회원님들과 합의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원 회원과 일반 시민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사업을 지속가능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책자 발간, 사진자료 수집, 구술영상 제작 등 향토사료 발굴사업은 반드시 지속시켜 나가야 할 본원의 목적 사업입니다. 본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수상한 '2020년도 국가기록 관리 유공 표창'의 경력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도외 역사유적지 탐방 기회를 확대하여 회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 본원의 향토문화연구회를 연구소로 격상하여 실질적으로 본원 회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순수 시민연구단체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도내에는 400여 개에 달하는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원과 목적사업이 유사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내용의 질을 더욱 높이고, 사업 수혜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제주문화원의 날'을 마련하여 전시, 공연, 세미나 등 회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회원간 교류와 단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가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맺은 인연들과 임원 및 회원들의 협력을 통해 예산확보가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모두, 그리고 제주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문화원으로서 누구나 문화원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의견을 서로 나누며, 제주도의 대표 문화원으로서 대외적으로 그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원 창립 초기 양중해, 홍순만 원장님이 닦아놓은 든든한 초석 위에 역대 원장님들이 이루어낸 문화사업, 특히 재임 중 작고하신 김봉오 원장님, 현 김순이 원장님의 본원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제주문화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속시키면서 더 새로워지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제주문화원장 입후보자 김양택

소견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제주문화원 10대 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양택 인사드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교직생활에 몸을 담았고, 탐라교육원장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탐라교육원장으로 재직 당시 학생들의 수련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퇴임 후에는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도의회 교육자문위원, 제주도 자원봉사발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단법인 바다사랑실천협의회회장으로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일보 칼럼니스트, 제주수필 부회장, 영주문학회 회장, 맥동인회 회장을 맡아 문학활동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3년 본원 문화대학을 5기로 수료하고, 이후 본원 회원이 되어 본원 소속 향토문화연구회 감사, 실버합창단 부회장으로 제주문화원의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특히 저는 본원 회원이 되고 향토문화연구회와 실버합창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본원의 수장이라면 명확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본원 설립목적인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해 제주문화원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주문화원은 본원의 회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 시민이 주인인 문화공간입니다. 1994년 창립된 이래 제주문화원은 한편으로는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취미 공간으로, 한편으로는 제주 지방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일반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오고 있는 명실공히 제주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입니다. 때문에 제주문화원은 이념적인 사고나 정치색을 띠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숯눈과 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문화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역대 문화원장님에 이어 그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 놓겠습니다.

제주문화원이 제주의 사람과 문화를 생각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회원님들의 순수한 지성과 양심을 믿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0대 제주문화원장 입후보자 김양택